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기념
특별 희년 전대사 선포**



(2026년 1월 10일 ~ 2027년 1월 10일까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선포 800주년 기념 특별 희년 전대사 선포

1. 기간: 2026년 1월 10일 ~ 2027년 1월 10일까지
2. 대상: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
3. 장소: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봉헌된 모든 성당, 프란치스코 성인을 후보 성인으로 모시는 성당, 프란치스코 성인과 관련된 곳
4. 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본인 또는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하여)
 - ① 고해성사: 하느님의 은총 지위에 있기 위하여 (희년 참여 전 후 8일 이내).
 - ② 미사 참례 및 영성체.
 - ③ 순례: 전 세계 어디에서든 프란치스코 수도원 성당이나 성 프란치스코에게 봉헌된 예배 장소를 순례하며, 사도신경(신앙고백)을 바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함.
 - ④ 주님의 기도: 세례를 통해 받은 하느님 자녀로서 품위를 재확인하기 위해 바침.
 - ⑤ 교황님의 기도 지향(매일미사 책 첫 장에도 있음)을 기도: 교회의 기초이자 일치에 가시적 중심인 로마 교황과의 일치를 재확인하기 위해 바침.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기념 특별 희년 선포 및 희년 전대사에 관한 교령.

“우리 사부요, 형제인 프란치스코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시고 그를 사람들 가운데 드높이시고 천사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신 그분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도 그와 함께 당신의 거룩한 은총에 참여시켜 주시도록 그분께 전구하십시오.”

이제 막 막을 내린 2025년 정기 희년이 낳은 은총의 열매들이 여전히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지금, 우리 모두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로마 5, 5) 희망의 순례자들이 되도록 격려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희년의 이상적인 연장선으로서, 기쁨과 성화의 새로운 기회가 더해집니다. 바로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지상의 삶을 마치고 천상 고향으로 복되게 건너가신 지(1226년 10월 3일) 800주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씨시의 성인의 성덕과 업적에 관한 다른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기념제를 지내왔습니다. 처음으로 성탄 구유를 재현했던 그레치오 성탄 800주년, 창조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노래한 ‘피조물의 노래’ 800주년, 그리고 성인이 돌아가시기 2년 전, 마치 또 하나의 골고타와 같았던 라베르나 산에서 받은 오상 800주년이 그것입니다. 2026년은 이러한 기념들의 정점이고 완성이 되는 해로 ‘성 프란치스코의 해’가 될 것이며, 우리 모두는 ‘세라핌적 사부’의 모범을 따라 오늘날 세상에서 성인이 되도록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사도 4,12) 라는 증언을 경이로운 진리로 믿고 있듯이, 소위 ‘성전(聖戰)’의 이름을 한 전쟁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그릇된 종교적 열광이 만연하였던 12세기와 13세기에 “세상에 한 태양이 솟아났다.”는 증언 또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으나 가난하고 겸손해졌으며, 이 땅 위에서 참으로 “제2의 그리스도(alter Christus)”로 불릴 만큼, 복음적 삶의 구체적인 모범이 되었

고, 그리스도교적 완덕의 참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더욱더 유효하고 와닿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교적 사랑이 식어가고, 무지와 부도덕이 만연하며, 민족 간의 화합을 외치는 이들조차 진정한 그리스도교 정신보다는 이기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때에, 또한 가상이 현실을 잠식하고, 불화와 사회적 폭력이 일상이 되어 평화가 날마다 더욱 불안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때에, 이 ‘성 프란치스코의 해’는 우리 모두에게 자극이 될 것입니다. 아씨의 가난한 이를 본보기로 삼은 것은, 우리 각자의 처지와 가능성에 따라 최대한 그리스도라는 본을 닮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희년 동안 다짐한 결심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로 품었던 그 희망을 이제 적극적인 사랑의 열정과 투신으로 꽃 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죄를 지은 형제가 그대의 눈을 바라보고 자비를 청했는데도 그대의 자비를 얻지 못하고 물러서는 형제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도록 하십시오. 나는 그것으로 그대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분의 종이며 그대의 종인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 탁월한 문장은 유명한 ‘어느 봉사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 편지를 통해 익명의 한 형제에게 위로와 조언을 건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비의 근본 개념을 규정하고 강조합니다. 이 자비의 개념은 용서와 대사와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특별한 용서인, “아씨의 용서”, 또는 “포르치운쿨라 전대사”라고 불리는, 교황 호노리오 3세가 프란치스코에게 직접 허락한 특전과도 연결됩니다. 이 특전은 8월 2일에 아씨시 인근의 작은 성당을 방문하여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영한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작은 성당은 800년 전에 “땅의 작은 한 부분(portion)”에 지어져서 “포르지운쿨라(Porziuncola)”라고 불리는 성당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부터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확인한 성 프란치스코가 포르치운쿨라 봉헌식에 모인 군중에게 은총의 허락을 선포하며 뿔어냈던 관대한 열정과 기쁨으로, 우리 신앙과 기쁨의 봉사자인 교황 레오 14세 성하께서는 2026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를 ‘성 프란치스코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기 동안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아씨시의 성인의 모범을 따라, 자신도 성화된 삶으로 모범이 되고, 평화의 증거가 되도록 초대받습니다.

이 희년의 목적이 더욱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교황청 내사원은 교황 성하의 뜻에 따라 반포되는 본 교령을 통하여, ‘성 프란치스코의 해’의 전대사를 통상적인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을 따른 기도)으로 부여합니다. 이 전대사는 또한 연옥 영혼들을 위한 전구의 형태로 적용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구성원들

- 프란치스칸 1회, 2회 및 수도 3회와 재속 3회 회원들.
- 성 프란치스코의 회칙을 따르거나 그의 영성에서 영감을 받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그의 카리스마를 계승하는 봉헌 생활단과 사도적 생활단 및 공적, 사적 신자 단체의 구성원들.

2) 모든 신자들

- 죄를 멀리하는 마음으로 ‘성 프란치스코의 해’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전 세계의 프란치스칸 수도회의 성당이나 경당, 성 프란치스코에게 봉헌된 성당, 또한 어떤 이유로든 프란치스코 성인과 연결된 모든 예배 장소를 순례의 의미로 방문하여, 희년 예식을 경건하게 참여하거나, 혹은 적절한 시간 동안 신심 깊은 묵상을 하며,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자비의 마음이 퍼져 나가고 민족들 사이의 평화와 화해를 바라는 열망이 피어나기를 기도하는 이들.
- 이 기도는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프란치스코, 성녀 클라라 및 모든 프란치스칸 성인들에게 드리는 전구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 노인들, 병자들, 그들을 돌보는 이들,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모든 이들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어떠한 죄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통상적인 세 가지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을 따른 기도)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할 뜻을 지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자신의 기도와 삶의 고통 및 시련을 자비로우신 하느님 께 봉헌하여 ‘성 프란치스코의 해’ 희년 예식에 영적으로 참여하며 전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교회의 열쇠 권한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러한 기회를 신자들이 더욱 쉽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본 내사원은 적절한 권한을 지닌 모든 성직자들, 곧 수도회 사제들과 교구 사제들에게, 관대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꺼이 화해의 성사 거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교령은 '성 프란치스코의 해' 동안 유효하며 이와 충돌하는 어떤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로마 교황청 내사원에서, 주님 세례 축일 전야인 2026년 1월 10일 공포함.

성 프란치스코

1228년 7월 16일 교황인 그레고리오 9세에 의해 시성되신(축일: 10월 4일) 성 프란치스코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하늘이 지상으로 보낸 새로운 인간.”(보나벤투라) ,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설교자.”(프랑수아 드 살), “백 년마다 한 번 성 프란치스코가 태어난다면 세상의 구원은 보장될 것이다.”(마하트마 간디), “나에게 있어 성 프란치스코는 사람의 본분을 다한 인간의 표본이며, 시련 또한 평화로운 투쟁으로 이겨내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의무를 실천한 인물이기 때문이다.”(니코스 카잔차키스), “성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그분의 정신을 본받았다.”(교황 요한 23세), “프란치스코는 어떤 의미로는 보편적인 성인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통해 자신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포함한 다른 시대,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문명에도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셨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난의 사람, 평화의 사람, 피조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다.”(교황 프란치스코)

성 프란치스코는 1181년 경 이태리 중부 아씨시에서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빼에드로는 포목상이어서 여행을 많이 했는데, 특히 프랑스를 많이 방문했다. 그는 천성적으로 착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또한 젊은 시절 그는 음유시인의 시를 읊조리고 연가를 부르며 친구들을 이끌고 아씨시의 거리를 다니기도 했다. 한 때 그는 기사도의 영광을 추구하여 1202년 빼루지아와 아씨시 사이의 전쟁에 참여했으나 아씨시가 패하여 그는 포로가 되었다. 감옥에서 1년을 보낸 뒤 병으로 인해 그의 아버지가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풀려나오게 했다. 한 번도 건강이 좋았던 적이 없는데, 1204년 일년 내내 크게 앓았다. 그해 말(혹은 1205년 초) 그

의 병이 다 낫자 이번에는 아쁠리아에서 교황의 군대에 가담하기 위해 출정했다. 그들이 아씨시에서 25 마일 남쪽에 있는 스피레토에 닿았을 때 프란치스코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 어떤 소리가 그에게 아씨시로 되돌아가라고 명했다고 한다. 그것이 그의 일생을 바쳐서 행할 소명이 시작이었던 것이다.

아씨시로 되돌아온 그는 처음에는 옛날의 생활방식으로 살았으나 곧 바뀌었다. 부활의 첫 단계인 귀의의 첫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무의식의 심연에서 도약을 했는데, 그것을 일상생활의 양식으로 종합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귀의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삶과 죽음의 갈등이 그에게도 일어났다. 그는 일종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아씨시 교외에 있는 황량한 동굴을 찾아갔고 거기서 자신의 '배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청빈을 발견하게 된다. 중세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인 나환자들에 대한 그의 태도 또한 크게 바뀌었다. 그는 나환자들을 향한 선천적인 감정을 무릅쓰고 아씨시 근교에 있는 나병원에 가서 그들의 혈은 피부를 씻어주고 그들에게 봉사하였다.

1205년 말경, 그는 성 다미아노의 성당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가서 나의 교회를 고쳐라"하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말 그대로 복종하여 아씨시 근처의 폐허가 된 성당들을 보수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로 아버지와 마찰을 빚게 되었는데, 이때 그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그 곁을 떠난다. 이제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정된 길을 걷지 않으면 평화, 자유, 즐거움, 참된 자신은 전혀 얻지 못할 것임을 자신의 가장 깊은 내부에서 느꼈다. 아버지와 결별이 그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적어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굽비오 마을에서 나환자들과 함께 일한 뒤에 프란치스코는 은자의 복장을 하고 다시 한 번 교회를 복구하는데 헌신했다. 그는 그 후 사도들의 생활의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알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당장 지팡이와 신발, 가죽띠를 벗어 버리고 밧줄을 허리에 매었다. 이렇게 하여 겨울날 뾰르찌운폴라의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에서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탄생했다. 세상에서 가난한 수사로 살아 가는 그의 생활 방식의 기원인, 충동적이며 자발적인 성경애의 순종은 끝까지 그에게 남아 있게 된다.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이들이 11명이 되었을 때 그는 짧은 규칙을 작성했는데 거기에는 복음 몇 구절과 소규모 교단에 알맞는 실제적인 지침 몇 개만 있었다. 그의

수도회는 인노첸시오 3세에게 승인을 받았다. 그의 수도회는 처음부터 약진을 보였다.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어디서나 각계각층을 망라한 큰 민중운동이 일어났다. 그는 교황과 주교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주민들에게서도 크게 신뢰를 받았다. 그에게는 사람을 끄는 독특한 매력이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1221년 그의 수도회에 회칙을 만들어 주었으며, 그 후 프란치스코 자신은 완전히 그의 이상대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해 지도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1224년부터 심한 위병과 눈병을 앓았다. 그는 1224년 9월 알베르노산에서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결합되어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는 동안 주님의 상처를 자신의 몸에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수난에 있어서도 십자가에 못박힌 자와 결합됨으로써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그리스도 신자가 되었다. 고통 가운데서 그는 저 훌륭한 태양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것은 전 피조물의 찬미를 받는 하느님께 대한 넘쳐흐르는 사랑과 감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땅바닥에 누워 가난하고 헐벗은 채, 그러나 그의 형제들이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찬미가(Te Deum)를 입술로 중얼거리며 1226년 10월 3일, 45세의 짧은 나이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1226년 10월 3일 해 질 무렵, 죽음이 어느새 임박했다는 사실을 감지한 프란치스코는 수도자들에게 자신을 놓혀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뒤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편 142편을 나직이 읊은 후 세상을 떠났다. 이때 성인은 마지막으로 “내 형제 죽음이며, 어서 오라”라고 말씀하셨다.

프란치스코의 시신은 10월 4일 아침 아시시에 소재한 산 조르조 성당에 매장되었으나,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1230년 5월 25일 그를 기념하여 설립한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으로 이장되었다. 그의 유해는 아랍인들에게 약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혹은 이탈리아 귀족 가문들간의 분쟁에 휘말릴 후 있다는 이유로 철저히 비밀리에 안장되었고, 그렇게 묘지의 위치는 1818년 발견될 때까지 588년 동안 철저히 숨겨졌다. 심지어 프란치스코회 자신조차도 대강의 구전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한 위치를 모를 정도였다. 교황 비오 7세에게 허가받아 학자들이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1818년에 무덤을 찾아내었다.

프란치스코가 설립한 1회 작은형제회, 2회 성 클라라 수도회, 그리고 3회는 그의 사후 일련의 개혁을 통해 몇몇 분파로 나뉘었으나, 이들이 서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총합 약 65만 명이 소속된 프란치스코회라는 거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로 인해 현재 가톨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도회로 자리 잡았고, 이탈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 119개국에서 활동한다.